

청소년이 지각한 통제적 양육행동과 공격성의 관계: 우울과 역기능적 충동성의 중다매개효과*

신 현 숙[†] 곽 유 미 김 선 미

전남대학교 교육학과

이 연구의 목적은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공격성 간 관계에서 우울과 역기능적 충동성의 중다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남녀 고등학생 957명을 대상으로 부모양육태도 질문지, 한국판 우울증 척도(K-CES-D), 충동성 척도, 반응적-선제적 공격성 질문지(RPAQ)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분석을 통해,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이 우울과 역기능적 충동성을 매개로 하여 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고,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적용하여 우울과 역기능적 충동성의 중다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공격성 간 관계에서 우울과 역기능적 충동성의 중다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우울을 매개로 공격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유의하였다. 둘째,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역기능적 충동성을 매개로 공격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유의하였다. 셋째,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고 우울이 역기능적 충동성에 영향을 미쳐서 공격성에 이르는 경로도 유의하였다. 넷째, 우울과 역기능적 충동성을 매개변수로 설정하더라도,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력이 유의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이 변수 간 관계를 부분적으로 검증했던 한계를 보완하여,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우울과 역기능적 충동성에 관련지어 살펴보았다는데 의의가 있다. 청소년기 공격성에 대한 통제적 양육행동의 직접 효과뿐만 아니라 우울과 역기능적 충동성의 중다매개효과가 유의하다는 결과는 공격적인 청소년을 위한 학교심리 개입과 예방에서 부모자문의 간접 서비스와 청소년 대상의 직접 서비스를 병행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하였다.

주요어 : 통제적 양육행동, 우울, 역기능적 충동성, 공격성, 중다매개효과

* 이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의 일부를 2012년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발표하였음.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신현숙,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E-mail : shinphd@jnu.ac.kr

지난 10여 년 동안 미국의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기사건 뿐만 아니라 최근 우리나라 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학교폭력은 사회적 이슈로 다루어질 만큼 그 빈도와 심각성이 급증하고 있다. 또한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폭력사건을 통해 드러나는 청소년의 공격성은 자신과 타인에게 유해한 손상을 남길 뿐만 아니라 발달과업의 달성을 어렵게 만든다. 공격적인 청소년은 또래, 교사, 부모와 갈등을 겪으며 원만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학업부진, 학교부적응, 비행, 자해, 자살시도 등 다수의 부정적 결과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메타분석 연구(예, 서미정, 2011),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대규모 자료를 분석한 연구(예, 진혜민, 박병선, 배성우, 2011), 국외 연구(예, Conner, Swogger, & Houston, 2009; Greening, Stoppelbein, Luebbe, & Fite, 2010; Loveland, Lounsbury, Welsh, & Buboltz, 2007)에서 청소년기 공격성과 부적응의 관계를 지지하는 결과가 일관성 있게 보고되었다. 공격성은 지능만큼이나 안정적이고(Olweus, 1980), 청소년기 이후 신체적 싸움, 배우자 폭행, 폭력적 범죄행위의 전조로 작용한다(Loeber & Stouthamer-Loeber, 1998에서 재인용).

그러나 공격성은 아동기부터 성인초기에 이르기까지 불연속성(discontinuity)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공격성을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여지가 있으며, 이를 위해 공격성의 발달과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다수의 변수들을 찾아내고 변수 간 관련성을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맥락 변수들 중에서는 가정폭력과 강압적인 가정환경(장덕희, 2010; Olweus, 1980), 비행 또래와의 관계(Rappaport & Thomas, 2004), 훈육을 위해 과도하게 처벌적인 규정을 적용하는 학

교풍토(Haynes, Emmons, & Ben-Avie, 1997)가 주목을 받아왔다.

이 중에서 개인이 성장하면서 최초로 접하는 교육장면인 가정환경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모의 양육행동은 청소년의 공격적 행동의 발생과 유지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Dishion & McMahon, 1998). 청소년기에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증가하면서 부모의 영향력이 감소하기는 하지만, 부모가 자녀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중요하다. 부모는 오랫동안 자녀와 상호작용하고 가정의 정서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자녀의 정서, 행동, 사회적 관계, 학업, 진로 등 다양한 영역에 관여하기 때문이다(Darling & Steinberg, 1993). 예를 들면, 행동이나 감정의 표현에 대해 부모로부터 지나친 제재와 간섭을 받는 청소년은 구조화된 지지를 받는 청소년에 비해 또래괴롭힘 가해를 많이 하며(도현심, 김선미, 2006; 송경희, 송주현, 백지현, 이승연, 2009), 신체적 공격과 관계적 공격을 많이 보인다(김지현, 박경자, 2006; Casas et al., 2006).

부모의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공격성을 설명하는 정도가 공격적인 비행 또래와의 관계나 공격적 행동을 은연중에 묵과하는 학교규범의 영향력보다 크다는 결과도 발표된 바 있다(Copeland-Linder et al., 2007; Farrell, Henry, Mays, & Schoeny, 2011). 심지어 아동·청소년의 공격성과 폭력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오랜 관심을 받아온 폭력적 비디오 게임이나 TV 시청이 2, 3년 후의 청소년 공격성과 폭력행동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지 못하는 반면, 부모의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양육 방식은 유의한 예측변수로 밝혀졌다(Ferguson, Miguel, Garza, & Jerabeck, 2012; Valadez & Ferguson, 2012).

그렇다면 부모와 자녀의 부정적 상호작용,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적대적이고 지나치게 간섭하며 엄격한 제재와 비난을 가하는 통제적 양육행동이 어떻게 자녀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사회학습이론에 의하면, 자녀의 행동에 대해 강압적으로 제재하는 부모는 그 자신이 자녀에게 공격적 행동의 모델로 작용하고, 자녀는 갈등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행동이 상대방을 제어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임을 학습한다. 또한 부모와 자녀는 서로의 행동에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자녀의 공격적 행동에 대해 강압적인 양육을 하는 부모는 더욱 공격적으로 대응해 오는 자녀의 행동을 보면서 자신의 강압적인 양육행동을 정당화하고 지속하며, 그럼으로써 자녀의 공격적 행동도 증가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Patterson, 1986).

한편,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은 청소년 자녀로 하여금 분노와 슬픔을 느끼게 하고, 우울한 청소년의 우울증상을 심화시킨다(Hale, Van der Valk, Engels, & Meeus, 2005). 우리나라 청소년이나 외국 청소년이나 부모가 과도하게 간섭하고 비난하며 제재를 가한다고 지각할수록 부모와의 관계에서 안전감을 갖지 못하고 수치심, 자기비하, 우울을 경험하는 경향이 높다(김보경, 민병배, 2006; 문경주, 오경자, 2002; 박성연, 이은경, 2010; 안명희, 신희수, 2012; 조윤녕, 2002; Sheeber, Hops, Alpert, Davis, & Andrew, 1997).

이처럼 부모-자녀관계에서 상실, 좌절, 우울 등 부정적인 정서를 느낄 때, 자녀는 부정적인 정서경험에서 벗어나 자신을 방어할 목적으로 부모와의 거리를 멀리 두는 등 위축된 모습을 보이거나 부모에게 적대적으로 반항하거나 비행을 저지르는 등 외현화 행동문제를

일으킨다(조윤녕, 2002; Beyers & Loeber, 2003; Kovacs, Paulauskas, Gatsonis, & Richards, 1988). 뿐만 아니라 우울한 성인과 달리 우울한 아동·청소년은 과민한 기분(irritable mood)을 자주 경험하고(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00), 흥분상태에 놓이거나 짜증을 잘 낸다(Sheeber et al., 2009). 이렇듯이 부정적 기분을 통제하지 못할 때 좌절감은 공격적 행동으로 이어진다(Berkowitz, 1989; Knox, King, Hanna, Ghaziuddin, & Logan, 2000). 우울이 공격성을 예측하는 유의한 변수이고(예, Ferguson et al., 2012),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이 자녀의 우울과 관련된다는 선행연구(예, 김보경, 민병배, 2006; 안명희, 신희수, 2012; Hale et al., 2005)의 결과에 근거하여,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우울이 매개변수의 역할을 한다는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한편, 충동성은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말하거나 행동하는 ‘무계획적인 행동’, 흥분했을 때 진정이 잘 안되고 화를 잘 내는 ‘정서조절의 결함’, ‘공격욕구 통제의 결함’을 특징으로 한다(Barratt, 1991; Dickman, 1990). 아동·청소년의 충동성은 신체적 및 언어적 공격행동, 실제 위협이나 지각된 위협에 대한 분노를 수반한 반응적 공격성, 규칙위반, 음주와 흡연, 자살시도, 자해행동 등 여러 유형의 과소통제된 행동문제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Barratt, 1991; Clarke, 2006; Raine et al., 2006; Ramirez & Andreu, 2006).

충동성은 상황에 따라 기능적일수도 있고 역기능적일수도 있다. 기본적인 욕구를 신속하게 충족시켜야 할 필요가 있거나 자발성과 신속한 통찰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충동적인 반응양식이 기능적이지만, 심사숙고하여 신중

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는 역기능적이다(Dickman, 1990). 충동 조절의 어려움이 오랫동안 지속되거나 그 정도가 지나칠 경우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초래될 뿐만 아니라 품행장애,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 반사회적 성격장애, 기분장애가 발생하기도 한다(최혜라, 이훈진, 2012). 특히, 충동성은 전 생애에 걸쳐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의 발생에 선행하는 예언변수로 작용한다(Ostrov & Godleski, 2009; Vigil-Colet & Codornin-Raga, 2004). 성급하고 충동적인 학생들에게 학교-기반의 충동성 조절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신체적 및 언어적 공격성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킨 Wilson, Lipsey와 Derzon(2003)의 연구결과 또한 충동성이 공격성의 결과가 아니라 원인일 수도 있음을 암시한다.

이렇게 행동이나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하는 충동적인 자녀는 강압적인 훈육을 하는 부모와 함께 사는 빈도가 높다(Frick, 1994; Patterson, 2002). 강압적인 훈육의 과정을 거치면서 부모와 자녀는 서로에 대해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게 되고, 부모로부터 가혹한 제재와 냉담한 반응을 받는 청소년 자녀는 부모의 통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충동적인 행동을 한다(예, 이은경, 2001; Frick, 1994; Patterson, 2002). 또한 부모가 자녀에게 엄격하게 명령하고 강요하는 방식으로 양육하는지의 여부가 충동적이고 산만하며 반항적인 자녀 집단과 그렇지 않은 자녀 집단을 90% 정확하게 판별하는 것으로 밝혀졌다(Lindahl, 1998).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충동성 간 관련성을 지지한다.

또한 청소년의 충동성은 우울과 유의한 관계를 이룬다. 충동적인 인지양식은 우울하지 않은 아동·청소년 집단보다 우울한 집단에서

더 많이 발견되었고(Palladino, Poli, Masi, & Marchesi, 1997), 부모는 우울하지 않은 자녀보다 우울한 자녀를 더욱 충동적이라고 평가하였다(Cataldo, Nobile, Lorusso, Battaglia, & Molteni, 2005). 우울이 심각한 성인 입원환자에게서는 행동적 통제력의 상실, 무계획성, 인지적 충동성이 뚜렷하게 나타난다(Corruble, Benyamina, Bayle, Falissard, & Hardy, 2003).

그러나 우울과 충동성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거는 확실하지 않다. 우울한 청소년의 충동성이 자살시도에 연관되는 과정을 밝힌 연구(Javdani, Sadeh, & Verona, 2011)와 고등학생의 1차년도 우울증상과 행동적 충동성이 2차년도 비자살적 자해(non-suicidal self-injury)의 발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You & Leung, 2012)는 우울과 충동성이 각각 자살시도 또는 자해의 유의한 예언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로 우울과 충동성의 인과관계 또는 시간적 선후관계를 파악할 수는 없다. 다른 연구에서는 충동성이 우울 발병의 유의한 예언변수로 보고되었고(Grano et al., 2007), 청소년의 충동성이 인지적 정서조절을 매개로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지지되기도 하였다(d'Acremont & Van der Linden, 2007). 한편, 우울이 도박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충동성의 완전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도 밝혀졌다(Clarke, 2006). 즉, 우울 수준이 높을수록 충동성이 심해지고 결과적으로 도박행동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충동조절의 문제는 병리적 도박행동 뿐 아니라 공격적 행동으로도 나타나므로(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00), 우울이 충동성을 매개로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가정해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 청소년의 우울, 역기능적 충동성은 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우울,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충동성, 청소년의 우울과 충동성,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공격성, 청소년의 우울과 공격성, 청소년의 충동성과 공격성의 단편적인 관계를 검증했을 뿐이다. 일부 연구(Berkowitz, 1989; Knox et al., 2000)를 통해, 청소년 자녀가 부모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부정적 기분을 통제하지 못할 때 좌절감을 갖게 되고 이를 공격적 행동으로 표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우울한 청소년의 충동적 성향이 공격적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우울 및 역기능적 충동성이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다매개경로를 직접 검증한 연구는 아직 시도되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는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 청소년의 우울, 역기능적 충동성, 공격성의 단편적인 관계를 검증하기보다는 통제적 양육행동과 청소년 공격성의 관계에서 우울과 역기능적 충동성의 중다매개효과(multiple mediated effects)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 청소년의 우울, 역기능적 충동성, 공격성 간 관계에 관한 연구모형의 적합도가 경합모형보다 더 양호할 것이다.

가설 2.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공격성 간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가 유의할 것이다.

가설 3.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공격성 간 관계에서 역기능적 충동성의 매

개효과가 유의할 것이다.

가설 4.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공격성 간 관계에서 우울과 역기능적 충동성의 중다매개효과가 유의할 것이다.

방 법

모형설정

선행연구에서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공격성 간 관계가 일관성 있게 지지되었으므로, 통제적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공격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가정할 수 있다. 이러한 예언변수와 결과변수 간의 강력한 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예언변수가 결과변수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생성기제(the generative mechanism)로 매개변수를 추가로 가정하여(Holmbeck, 1997), 그림 1과 같이 부분매개모형을 연구모형으로 설정하였다.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2개의 경합모형을 설정하였다. 경합모형 1은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공격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로만 제거된 완전매개모형이다. 그림 2와 같이, 경합모형 1에는 통제적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우울을 매개로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통제적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역기능적 충동성을 매개로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통제적 양육행동이 우울과 역기능적 충동성을 순차적으로 거쳐서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있다. 경합모형 2는 통제적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우울과 역기능적 충동성을 차례로 거쳐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순차적 관계만을 가정한 완전매개모형으로, 그림 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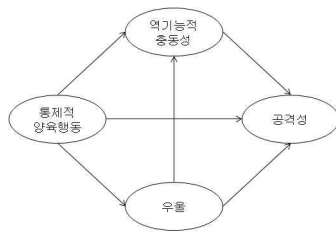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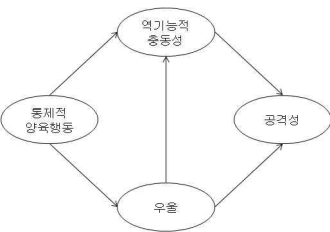


그림 2. 경합모형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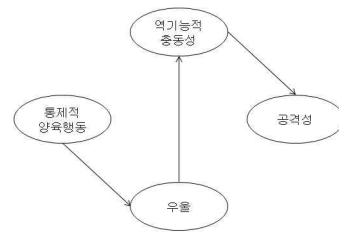


그림 3. 경합모형 2

연구대상

이 연구는 G광역시에 소재한 일반계 고등학교 4개교와 전문계 고등학교 2개교에 재학 중인 1학년 남녀 학생 98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무응답이 있는 설문지 25부를 제외하여, 957명(남자 일반계 305명, 남자 전문계 142명, 여자 일반계 301명, 여자 전문계 209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측정도구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서보윤(2008)의 부모양육태도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이 질문지는 Schaefer의 수용적 양육행동 차원과 통제적 양육행동 차원에 따라 제작된 아동용 척도이지만, 통제적 양육행동의 핵심내용을 간편하게 측정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부모의 엄격한 제재, 순응을 위한 명령, 비난 위주의 훈육 등을 묻는 7개 문항의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실시하였다(예, “부모님은 나에게 ‘이것을 해서는 안 돼’ ‘저것을 해서는 안 돼’라고 자주 말씀하신다.” “부모님은 큰 목소리로 호통을 치시거나 주의를 주신다.”). 응답자

는 각 문항이 자신의 부모를 얼마나 잘 나타내는지 1(전혀 아니다)부터 4(거의 언제나 그렇다)까지의 4점 척도에 응답하였다. 원저자는 문항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s α)를 .79(부), .76(모)으로 보고하였다. 이 연구에서 산출한 측정변수별 문항내적일치도 계수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우울

우울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미국 정신보건연구원에서 개발한 역학연구센터 우울 척도(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 CES-D, Radloff, 1977)를 전검구, 최상진, 양병창(2001)이 번안한 통합적 한국판 CES-D를 실시하였다.

이 척도는 일반인이 경험하는 현재의 우울 증상 수준을 평가할 목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에서도 심리측정적 양호도가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예, Roberts, Andrews, Lewinsohn, & Hops, 1990; Sheeber et al. 2009).

총 20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각 문항이 나타내는 우울증상을 최근 1주일동안 얼마나 자주 경험했는지를 1(거의 드물었다: 1주일에 0~1일)에서 4(거의 언제나 그랬다: 1주일에 5~7일)까지 4점 척도에서 응답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도록 긍정적

문항에 대한 응답을 역채점하였다. 중학교 3학년~고등학교 3학년 집단에서 문항내적일치도는 .87~.92의 범위에 속하였고(Roberts et al., 1990), 전검구 등의 연구에서는 .91이었다. 이 연구에서 산출한 측정변수별 계수는 표 1과 같다.

역기능적 충동성

역기능적 충동성을 측정하기 위해, Dickman (1990)의 충동성 척도를 이인혜(2001)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기능적 충동성을 재는 11개 문항과 역기능적 충동성을 재는 1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역기능적 충동성 문항 12개(예, “나는 내가 지킬 수 있을지 없을지를 생각하지 않고 약속을 하는 편이다.”)에 대한 응답만을 분석하였다. 이인혜(2001)는 문항내적일치도 계수를 .78로 보고하였고, 이 연구에서 산출한 측정변수별 계수는 표 1과 같다.

공격성

청소년의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Raine 등(2006)의 반응적-선제적 공격성 질문지(Reactive Proactive Aggression Questionnaire, RPAQ)를 사용하였다. 이 질문지는 반응적 공격성 11문항(예, “놀림을 당했을 때 상대방에게 화를 내거나 상대방을 때린 적이 있다.”)과 선제적 공격성 12문항(예, “남의 돈이나 물건을 얻으려고 폭력을 쓴 적이 있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자는 각 문항에 대해 0점(전혀 그런 적이 없다), 1점(가끔 그런 적이 있다), 2점(자주 그랬다) 중 하나의 응답을 선택하였다. Raine 등(2006)이 보고한 문항내적일치도 계수는 반응적 공격성 .84, 선제적 공격성 .86, 전체 .90이었고, 이 연구에서 산출한 측정변수

별 계수는 표 1과 같다.

연구절차

담임교사와 교과담당교사가 연구목적과 설문조사의 실시절차에 관한 간략한 설명을 듣고 난 후에 교실에서 무기명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학생들은 설문조사에 관한 기본적인 안내를 받은 후에 자신의 속도대로 문항을 읽고 응답하였다. 응답에는 대략 20분이 소요되었다.

자료분석

IBM SPSS Statistics 20을 사용하여, 통제적 양육행동, 우울, 역기능적 충동성, 공격성 측정변수들의 상관관계를 검증하였다. 다음, 우울과 역기능적 충동성이 통제적 양육행동과 공격성의 관계를 매개하는 중다매개모형(multiple mediator model)을 설정하고, Amos 20을 이용한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은 이론적 구조모형이 경험적 자료에 적합한지를 검증하고, 잠재변수가 두 개 이상의 측정변수들을 포함한 경우에 측정오차를 제거한 상태에서 잠재변수들의 관계를 파악하며, 매개효과의 유의도를 검증하는데 유용한 방법이다. 모든 통계값의 유의도는 $p < .05$ 수준에서 검증하였다.

우선, 다음과 같은 문항 꾸러미(item parceling) 방식을 적용하여 각 잠재변수의 측정변수들을 구성하였다. 통제적 양육행동 척도와 역기능적 충동성 척도는 각각 단일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척도별로 문항들을 무작위로 임의 분할하여 2개의 측정변수를 설

정하였다. 우울 척도의 문항들은 신체증상/우울감(예, “별로 먹고 싶지 않고 입맛이 없었다.” “외로움을 느꼈다.”), 긍정적 정서경험(예, “행복했다.”), 대인관계문제(예,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무력감(예,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일이 괴롭고 귀찮게 느껴졌다.”)의 4개 측정변수로 분할되었다. 이는 기존의 연구(배성우, 신원식, 2005; Edwards, Cheavens, Heiy, & Cukrowicz, 2010)에서 우울의 4요인 구조가 지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연구에서 실시한 확인적 요인분석에서도 4요인 구조모형의 적합도가 양호하였기 때문이다(TLI=.901, CFI=.923, RMSEA=.064). 공격성 잠재변수는 선제적 공격과 반응적 공격의 2개 측정변수로 설정하였다. 이는 공격성의 기능을 2유형으로 구분한 선행연구(Dodge, 1991; Mathieson & Crick, 2010)와 공격성 질문지의 하위척도 구성에 근거하여 내린 결정이다(Raine et al., 2006).

다음, 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고려하여 양호한 모형을 선정하였다. 절대 적합도 지수 χ^2 값은 표집크기에 민감하여 표집이 클 때 유의할 수 있으므로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기 위한 χ^2 차이 검증을 실시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려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 대신, 비교 적합도 지수 TLI(Tucker Lewis Index)와 CFI(comparative fit index), 모수 불일치성 지수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검토하였다. TLI와 CFI가 .95이상이거나 RMSEA가 .05 이하면 좋은 적합도(close fit)로, TLI와 CFI가 .90~.95이거나 RMSEA가 .05~.08이면 괜찮은 적합도(reasonable fit)로, RMSEA가 .08~.10이면 보통 적합도(mediocre fit)로 해석하였다(홍세희, 2000).

마지막으로, 모형비교를 통해 적합도가 가

장 양호한 것으로 판정된 모형에 ‘통제적 양육행동 → 우울 → 공격성’의 매개경로, ‘통제적 양육행동 → 역기능적 충동성 → 공격성’의 매개경로, ‘통제적 양육행동 → 우울 → 역기능적 충동성 → 공격성’의 매개경로를 나타내는 팬텀변수들을 설정하였다. 이는 통제적 양육행동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 역기능적 충동성의 매개효과, 우울과 역기능적 충동성이 순차적으로 작용하는 매개효과를 개별적으로 검증하기에 적합한 방법이기 때문이다(Rindskopf, 1984). 한편, 매개효과의 유의도를 검증하기 위해 Sobel 검증 대신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활용하였다. Sobel 검증은 정규분포를 가정해야 하지만, 부트스트래핑은 분포의 정규성을 가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Shrout & Bolger, 2002). 매개효과의 추정값이 95% 신뢰구간 안에 0을 포함하지 않으면 유의도 .05 수준에서 매개효과가 유의하다고 해석하였다.

결 과

측정변수의 상관과 기술통계값

측정변수 간 상관계수와 각 측정변수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는 표 1과 같다. 통제적 양육행동의 측정변수들과 우울 측정변수 중 긍정정서부재의 상관, 통제양육2와 역기능적 충동2의 상관, 긍정정서부재와 역기능적 충동1의 상관, 긍정정서부재와 공격성의 상관이 유의하지 않은 것을 제외하면, 측정변수 간 정적 상관이 대체로 유의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변수별 분포의 왜도와 첨도를 검토하였다. 일

표 1. 측정변수 간 상관계수와 기술통계값

(N=957)

측정변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① 통제양육1	-									
② 통제양육2	.60***	-								
③ 신체증상/우울감	.13***	.08*	-							
④ 긍정정서부재	-.01	.01	.41***	-						
⑤ 대인관계문제	.14***	.12***	.60***	.25***	-					
⑥ 무력감	.18***	.14***	.71***	.36***	.52***	-				
⑦ 역기능적 충동1	.09**	.11**	.08*	.01	.13***	.18***	-			
⑧ 역기능적 충동2	.07*	.04	.13***	.09**	.13***	.18***	.49***	-		
⑨ 선제적 공격	.14***	.13***	.22***	.04	.22***	.24***	.25***	.11**	-	
⑩ 반응적 공격	.20***	.16***	.28***	.03	.22***	.32***	.23***	.18***	.54***	-
평균	2.31	2.28	1.75	2.49	1.61	1.87	.39	.43	1.22	1.82
표준편차	.75	.78	.63	.72	.66	.58	.25	.27	.26	.32
왜도	.47	.38	.93	-.06	1.16	.87	.39	.30	1.89	.18
첨도	-.28	-.46	.46	-.65	.88	.71	-.54	-.68	4.86	.19
Cronbach's α	.80	.63	.87	.80	.73	.75	.47	.58	.82	.76

* $p < .05$. ** $p < .01$. *** $p < .001$.

반적으로, 왜도가 절대값 3.0보다 크거나 첨도가 절대값 8.0보다 크면 문제가 있는 변수로 간주한다(Kline, 2010).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연구에서 측정된 변수 각각의 왜도가 2.0을 초과하지 않았고 첨도는 5.0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분포의 정규성 가정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관계모형 검증

관계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연구모형, 경합모형 1, 경합모형 2의 χ^2 값이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으나, χ^2 값은 표집크기에 민감하므로 무시하였다. 그 대신,

연구모형의 TLI와 CFI가 좋은 모형의 적합도 기준인 .95 이상이었고, RMSEA는 괜찮은 모형의 적합도 기준을 충족하였다. 경합모형 1과 경합모형 2의 적합도 역시 괜찮은 수준에 해당되었다.

χ^2 차이검증의 결과, 연구모형과 경합모형 1의 χ^2 차이가 18.114로 자유도 1일 때 임계값 3.84보다 커서 유의하였다. 즉, 경로를 하나 더 추가하더라도 χ^2 값을 유의하게 낮출 수 있는 연구모형이 경합모형 1에 비해 잠재변수 간의 관계를 더 적절히 설명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연구모형과 경합모형 2의 χ^2 차이가 100.967로 자유도 3일 때 임계값 7.82보다 커서 유의하였다. 즉, 연구모형이 경합모형 2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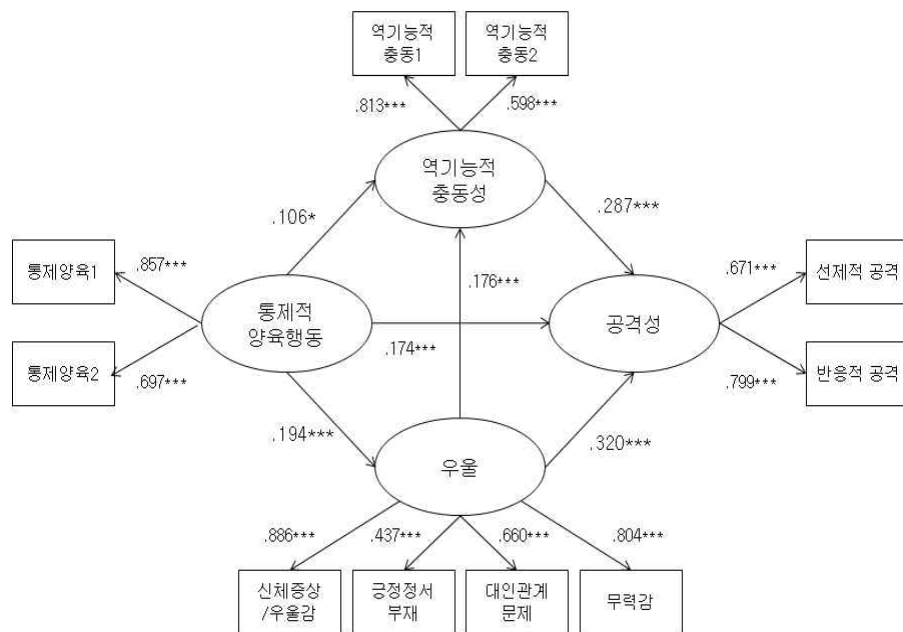
표 2. 통제적 양육행동, 우울, 역기능적 충동성, 공격성의 관계모형 적합도

모형	χ^2	df	p	TLI	CFI	RMSEA
연구모형	101.645	29	.000	.956	.972	.051
경합모형 1	119.759	30	.000	.948	.965	.056
경합모형 2	202.612	32	.000	.907	.934	.075

표 3. 연구모형에서 통제적 양육행동, 우울, 역기능적 충동성, 공격성의 관계

경로	B	SE	β	t
우울 ← 통제적 양육행동	.168	.038	.194	4.404***
역기능적 충동성 ← 통제적 양육행동	.033	.014	.106	2.349*
역기능적 충동성 ← 우울	.063	.015	.176	4.176***
공격성 ← 역기능적 충동성	.249	.049	.287	5.045***
공격성 ← 우울	.100	.014	.320	7.198***
공격성 ← 통제적 양육행동	.047	.012	.174	3.771***

* $p < .05$. *** $p < .001$.



* $p < .05$. *** $p < .001$.

그림 4.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 청소년의 우울, 역기능적 충동성 및 공격성의 관계모형

비해서도 더 적합한 모형으로 판명되었다. 요약하면, 각 모형이 경험적 자료를 설명하는 정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고, 연구모형이 가장 적합한 모형이다. 이로써 가설 1이 지지되었다.

표 3에서 보듯이, 연구모형에서 잠재변수 간 관계를 나타내는 모든 경로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우울이 높고, 역기능적 충동성도 높았다. 우울이 높을수록 역기능적 충동성이 높고, 공격성도 높았다. 또한 역기능적 충동성이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통제적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공격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로도 유의하였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채택된 관계모형은 그림 4와 같다.

중다매개효과 검증

모형비교를 통해 적합도가 가장 양호한 것으로 판정된 연구모형에 각각의 매개경로를 나타내는 팬텀변수를 설정하고 부트스트래핑을 적용하여 중다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각 매개효과 추정값의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유의도 .05 수준에서 모든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즉,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공격성 간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 역기능적 충동성의 매개효과, 우울과 역기능적 충동성의 순차적

매개효과가 모두 유의하였다. 따라서 가설 2, 가설 3, 가설 4가 지지되었다. 이는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거나 역기능적 충동성에 영향을 미쳐 공격성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통제적 양육행동의 영향력이 청소년의 우울과 역기능적 충동성을 순차적으로 거쳐 최종적으로 청소년의 공격성에 이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논 의

이 연구의 목적은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우울과 역기능적 충동성을 매개로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모형을 설정하고, 우울과 역기능적 충동성의 중다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고등학교 1학년 남녀 학생 957명으로부터 수집한 자기보고식 자료에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적용하였다. χ^2 차이검증의 결과,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공격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로만 제거한 경합모형 1과 변수 간의 순차적 관계만을 가정한 경합모형 2에 비해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 경로를 포함한 연구모형이 가장 적합한 모형으로 판명되었다. 연구모형에 부트스트래핑을 적용한 결과,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공격성 간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 역기능적 충동성의 매개

표 4. 부트스트래핑을 적용한 중다매개효과 검증

경로	추정값	표준오차	p	95% 신뢰구간
통제적 양육행동 → 우울 → 공격성	.010	.005	.010	(.010, .030)
통제적 양육행동 → 역기능적 충동성 → 공격성	.019	.005	.019	(.002, .024)
통제적 양육행동 → 우울 → 역기능적 충동성 → 공격성	.003	.001	.010	(.010, .006)

효과, 우울과 역기능적 충동성의 순차적 매개 효과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공격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포함한 연구모형의 적합도가 양호하고 직접 경로가 유의하였으므로 부모의 적대적이고 과잉 통제적인 양육행동이 자녀의 공격성을 발생·지속시키는 강력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기존의 이론적 주장과 경험적 연구(예, 김지현, 박경자, 2006; 송경희 등, 2009; Copeland-Linder et al., 2007; Farrell et al., 2011; Ferguson et al., 2012; Rey & Plapp, 1990)의 결과를 지지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공격성의 예방과 개입을 위해, 제재와 처벌 위주의 통제적 양육이 초래하는 문제점을 알리고 대안을 모색하는 부모자문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청소년 공격성 수준의 사전판별 뿐만 아니라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평가의 실시가 바람직할 것이다.

다음, 이 연구모형에 포함된 각각의 잠재변수 간 관계를 나타내는 경로계수가 모두 유의하였다. 이는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우울과 관련되고(김보경, 민병배, 2006; 안명희, 신희수, 2012; Hale et al., 2005), 우울이 역기능적 충동성에 영향을 미치며(Clarke, 2006), 우울이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고(Ferguson et al., 2012), 충동성이 공격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Raine et al., 2006; Ramirez & Andreu, 2006)의 결과와 일치한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존의 연구들이 하나의 변수와 다른 하나의 변수가 이루는 관계를 부분적으로 살펴본데 그친 것과 달리, 이 연구에서는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 청소년의 우울, 역기능적 충동성, 공격성의 네 가지 변수가 이루는 관계를 종합적 틀 안에서 검증

했는데 의의가 있다. 우울과 역기능적 충동성의 중다매개효과가 유의한 결과는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이 청소년 자녀로 하여금 우울을 느끼게 하여 공격적이 되도록 하거나, 충동적으로 반응하게 하여 공격적 행동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우울 수준을 높이고 증가된 우울은 역기능적 충동성을 심화시켜서 역기능적 충동성이 공격적 행동을 초래하는, 공격성의 발달과정을 시사한다.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 청소년의 우울, 역기능적 충동성, 공격성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증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연구의 결과를 선행연구에 직접 비교하여 해석하기는 어렵다. 다만, 소수의 선행연구를 통해, 3개 변수들이 이루는 매개경로가 일부 검증되었다. 예를 들면,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이 청소년 자녀로 하여금 우울을 느끼게 하고 우울한 자녀는 부정적 정서경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부모와 거리를 두거나 반항하며(조윤녕, 2002; Beyers & Loeber, 2003; Kovacs et al., 1988), 청소년의 우울이 충동 조절의 어려움을 매개로 공격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Knox et al., 2000). 이 연구에서는 4개 변수들이 이루는 중다매개모형을 검증함으로써 종합적 틀 안에서 선행연구의 결과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

제재와 처벌 위주의 통제적 양육이 청소년의 공격성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청소년의 우울과 역기능적 충동성을 순차적으로 증가시켜 결국에는 공격성 수준을 증가시킬 수도 있음을 검증한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을 시사한다. 첫째, 통제적인 양육 환경 안에서 성장하면서 이미 공격성을 보이고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 청소년들에게는 학교심리학적 직접 서비스와 간접 서비스

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비교적 안정적인 특성으로 알려진 공격성을 감소시키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타의 부정적 결과를 예방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예를 들면, 공격적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우울한 기분을 명확히 인식하고 조절하도록 돕거나 어떤 행동이나 결정이 자신과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신중하게 판단한 후에 행동하도록 돕는 직접 개입이 공격성 감소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공격적인 청소년의 부모를 대상으로 양육행동에 관한 부모자문을 병행함으로써 청소년기 공격성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청소년의 우울과 역기능적 충동성의 감소를 목표로 하는 직접 개입과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의 감소를 목표로 하는 간접 개입의 병행 실시가 공격성 감소와 예방에 효과적일지를 검증하는 실험연구의 시도를 전제로 한다.

이 연구의 결과가 주는 시사점이 중요하지만, 몇 가지 제한점이 남아있다. 이에 기초하여,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한국판 CBCL을 실시하여 직접적 공격성과 반항적 공격성을 구분할 경우, 두 가지 공격성 모두 중·고등학교시기에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배도희, 오경자, 2010). 이 연구에서 측정변수로 설정한 선제적 공격성과 반응적 공격성의 발달궤적을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 추적 조사한 Fite, Colder, Lochman과 Wells(2008)에 의하면, 두 유형의 공격성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최고 수준에 도달한 이후 중학교 3학년까지 점차

감소하였다. 이처럼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공격성의 수준이 다르므로, 이 연구의 결과를 다른 연령대에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공격성 수준이 다른 연령대를 구분하고, 관계모형의 연령별 측정동등성을 검증하는 후속연구는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둘째, 이 연구에서 사용한 부모양육행동 질문지는 원래 아동용으로 제작된 것이다. 통제적 양육행동의 핵심내용을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었지만, 이 척도가 가진 한계 때문에 연구결과의 해석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부모의 통제적 양육은 과잉간섭, 과잉보호, 엄격한 훈육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지만(McLeod, Weisz, & Wood, 2007), 이 척도는 이들을 포괄하지 못한 한계를 안고 있다. 특히, 자녀가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자녀의 언어적 및 정서적 표현을 제재하기, 가족 안에서 자녀의 위치나 가치를 공격하기, 자녀가 죄의식을 느끼도록 잘못을 지적하기, 자녀가 잘못을 저지르면 애정을 철회하겠다고 으락지르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해진다(예, 안명희, 신희수, 2012). 우리나라 부모들이 청소년 자녀를 양육하는 통제적 방식의 특징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통제적 양육행동의 어떤 측면이 우리나라 청소년의 공격성 발달과정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인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

셋째, 이 연구에서는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실시하여 반응적 공격성과 선제적 공격성을 측정하였다. 공격성의 형태(신체적, 언어적, 관계적 공격성)는 외부 관찰자가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측정할 수 있지만, 공격성의 동기 또는 기능(선제적, 반응적 공격성)은 행위자 본인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Raine et al., 2006). 이 연구에서처럼 자기보고식 질문지가

반응적 공격성과 선제적 공격성의 자료 수집에 적절할지라도, 자기보고 자료는 자신을 긍정적으로 나타내려는 고의적 시도(방어적 태도, 사회적 바람직성, *faking good*)나 자신을 부정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고의적 시도(비전형 반응경향, *faking bad*)의 영향을 받는다.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반응경향을 탐지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자기보고 자료의 타당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격성의 동기와 형태를 조합하여 공격성의 유형 구분을 세분화하면, 다양한 이유에서 다양한 형태로 드러나는 청소년 공격성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인 제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이 연구에서는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 청소년의 우울, 역기능적 충동성, 공격성에 관한 자료를 모두 동시에 수집하였다. 횡단자료로는 변수들의 시간적 선후관계 또는 인과관계를 확신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단순한 선형적 인과관계로는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부모와 자녀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교호적 상호작용(transaction)과 그 효과를 설명할 수도 없다(Hipwell et al., 2008; Sameroff, 1995). 부모의 양육행동과 자녀의 부적응 간 악순환을 끊는 개입을 제안하려면, 다수의 측정시기에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는 종단연구의 시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부모는 여아보다 남아에게 더욱 엄격한 규칙을 적용하고 규칙위반에 대해 더 많은 제재를 부과한다(김순혜, 2003). 그리고 여아에 비해 남자는 부모의 양육행동을 더욱 거부적이며 적대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김애경, 2002). 통제적이고 적대적인 부모에 대해 자녀가 두려움을 느끼는 정도에 성차가 존재하고 이러한 두려움이 억제적 통제와 관련된다면, 공격성의 정도에도 성차가 나타

나기 마련이다(Campbell, 2006).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성별을 구분하여 자료를 분석하지 못하였다. 이 연구에서 지지된 잠재변수 간 관계모형과 중다매개효과가 남녀 집단 각각에서 똑같이 유의한지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간 차이를 고려한 연구는 공격적인 청소년의 부모를 위한 자문이나 부모교육에 더욱 구체적인 제안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보경, 민병배 (2006). 청소년 우울과 지각된 부모 양육 행동, 기질 및 성격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5(1), 221-236.
- 김순혜 (2003). 아동의 기질 및 양육태도와 정서기능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17(4), 1-12.
- 김애경 (2002). 지각된 부모 양육태도 및 사회적 지원과 초기 청소년의 우울 및 외현적 문제와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16(3), 31-50.
- 김지현, 박경자 (2006). 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적·외적 요인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 아동학회지, 27(3), 149-168.
- 도현심, 김선미 (2006). 남녀 아동의 또래괴롭힘과 관련된 변인들-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 117-126.
- 문경주, 오경자 (2002). 지각된 부모의 양육행동과 초기 청소년의 우울 및 불안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1), 29-43.
- 박성연, 이은경 (2010).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 청소년의 우울성향 및 우울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1(6), 87-106.
- 배도희, 오경자 (2010). 한국판 CBCL 공격행동 척도의 하위 2요인 모형탐색.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7(3), 371-390.
- 배성우, 신원식 (2005). CES-D척도(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Depression Scale)의 요인구조 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방법의 적용. *보건과 사회과학*, 18, 165-190.
- 서미정 (2011). 아동과 청소년의 외현적, 관계적 공격성의 성별 차이 및 관련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아동학회지*, 32(3), 143-162.
- 서보운 (2008). 초등학교 2-6학년 아동의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의 발달 및 부모의 양육태도와와의 관련. *초등교육연구*, 21(3), 467-489.
- 송경희, 송주현, 백지현, 이승연 (2009). 남녀 중학생의 정서적·인지적 특성, 부모의 양육행동과 또래괴롭힘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2(2), 1-22.
- 안명희, 신희수 (2012).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초기 청소년 자녀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9(2), 227-253.
- 이은경 (2001). 아동이 지각하는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충동성과의 관계.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인혜 (2001). 기능적 충동성과 역기능적 충동성의 성격적 및 인지적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1(1), 67-89.
- 장덕희 (2010). 부부폭력 목격경험에 따른 폭력가정 자녀의 적응유연성. *청소년학연구*, 17(1), 143-166.
- 전점구, 최상진, 양병창 (2001). 통합적 한국판 CES-D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6, 59-76.
- 조윤영 (2002). 아동이 지각한 부모갈등과 부모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내면화, 외현화 증상을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진혜민, 박병선, 배성우 (2011). 비공식낙인, 자아존중감, 우울, 공격성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경로분석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3(2), 121-148.
- 최혜라, 이훈진 (2012). 충동성과 강박성: 개념, 관계 및 임상적 함의.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1, 169-196.
-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00).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4th ed. text revision). Washington, DC: Author.
- Barratt, E. S. (1991). Measuring and predicting aggression within the context of a personality theory. *Journal of Neuropsychiatry*, 3, 535-539.
- Berkowitz, L. (1989). Frustration-aggression hypothesis: Examinations and reformul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06, 59-73.
- Beyers, J. M., & Loeber, R. (2003). Untangling developmental relations between depressed mood and delinquency in male adolescent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1, 247-266.
- Campbell, A. (2006). Sex differences in direct aggression. What are the psychological mediators?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1, 237-264.
- Casas, J. F., Weigel, S. M., Crick, N. R., Ostrov,

- J. M., Woods, K. E., Yeh, E. A. J., & Huddleston-Casas, C. A. (2006). Early parenting and children's relational and physical aggression in the preschool and home contexts.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7*, 209-227.
- Cataldo, M. G., Nobile, M., Lorusso, M. L., Battaglia, M., & Molteni, M. (2005). Impulsivity in depressed children and adolescents: A comparison between behavioral and neuropsychological data. *Psychiatry Research, 136*, 123-133.
- Clarke, D. (2006). Impulsivity as a mediato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problem gambling.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0*, 5-15.
- Conner, K. R., Swogger, M. T., & Houston, R. J. (2009). A test of the reactive aggression-suicidal behavior hypothesis: Is there a case for proactive aggress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8*, 235-240.
- Copeland-Linder, N., Jones, V. C., Haynie, D. L., Simons-Morton, B. G., Wright, J. L., & Cheng, T. L. (2007). Factors associated with retaliatory attitudes among African American adolescents who have been assaulted. *Journal of Pediatric Psychology, 32*, 760-770.
- Corruble, E., Benyamina, A., Bayle, F., Falissard, B., & Hardy, P. (2003). Understanding impulsivity in severe depression? A psychometrical contribution. *Progress in Neuro-Psychopharmacology & Biological Psychiatry, 27*, 829-833.
- d'Acremont, M., & Van der Linden, M. (2007). How is impulsivity related to depression in adolescence? Evidence from a French validation of th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questionnaire. *Journal of Adolescence, 30*, 271-282.
- Darling, N., & Steinberg, L. (1993). Parenting style as context: An integrative model. *Psychological Bulletin, 113*, 487-496.
- Dickman, S. J. (1990). Functional and dysfunctional impulsivity. Personality and cognitive correlat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95 - 102.
- Dishion, T. J., & McMahon, R. J. (1998). Parental monitoring and the prevention of child and adolescent problem behavior: A conceptual and empirical formulation. *Clinical Child and Family Psychology Review, 1*, 61-75.
- Dodge, K. A. (1991).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In D. Pepler & K. Rubin (Eds.), *The development and treatment for childhood aggression* (pp. 201-218). Hillsdale, NJ: Erlbaum.
- Edwards, M. C., Cheavens, J. S., Heiy, J. E., & Cukrowicz, K. C. (2010). A reexamination of the factor structure of 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Is a one-factor model plausible? *Psychological Assessment, 22*, 711-715.
- Farrell, A., Henry, D. B., Mays, S. A., & Schoeny, M. E. (2011). Parents as moderators of the impact of school norms and peer influences on aggression in middle school students. *Child Development, 82*, 146-161.
- Ferguson, C. J., Miguel, C. S., Garza, A., & Jerabeck, J. M. (2012). A longitudinal test of video game violence influences on dating and

- aggression: A 3-year longitudinal study of adolescents. *Journal of Psychiatric Research*, 46, 141-146.
- Fite, P. J., Colder, C. R., Lochman, J. E., & Wells, K. C. (2008).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proactive and reactive aggression from fifth to ninth grade. *Journal of Clinical Child & Adolescent Psychology*, 37, 412-421.
- Frick, P. J. (1994). Family dysfunction and the disruptive behavior disorders: A review of recent empirical findings. *Advances in Clinical Child Psychology*, 16, 203-226.
- Grano, N., Keltikangas-Jarvinen, L., Kouvonen, A., Virtanen, M., Elovainio, M., Vahtera, J., & Kivimäki, M. (2007). Impulsivity as a predictor of newly diagnosed depression. *Scandinavian Journal of Psychology*, 48, 173-179.
- Greening, L., Stoppelbein, L., Luebbe, A., & Fite, P. (2010). Aggression and the risk for suicidal behavior among children. *Suicide & Life-Threatening Behavior*, 40, 337-345.
- Hale, W. W., Van der Valk, I., Engels, R., & Meeus, W. (2005). Does perceived parental rejection make adolescents sad and mad? The association of perceived parental rejection with adolescent depression and aggression.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36, 466-474.
- Haynes, N. M., Emmons, C., & Ben-Avie, M. (1997). School climate as a factor in student adjustment and achievement. *Journal of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Consultation*, 8, 321-329.
- Hipwell, A., Keenan, K., Kasza, K., Loeber, R., Stouthamer-Loeber, M., & Bean, T. (2008). Reciprocal influences between girls' conduct problems and depression, and parental punishment and warmth: A six year prospective analysi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6, 663-677.
- Holmbeck, G. N. (1997). Toward terminological, conceptual, and statistical clarity in the study of mediators and moderators: Examples from the child-clinical and pediatric psychology literatur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5(4), 599-610.
- Javadani, S., Sadeh, N., & Verona, E. (2011). Suicidality as a function of impulsivity, callous-unemotional traits, and depressive symptoms in youth.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20, 400 - 413.
- Kline, R. B. (2010).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3rd ed.). New York: Guilford.
- Knox, M., King, C., Hanna, G. L., Logan, D., & Ghaziuddin, N. (2000). Aggressive behavior in clinically depressed adolescent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9, 611-618.
- Kovacs, M., Paulaskas, S., Gatsonis, C., & Richards, C. (1988). Depressive disorders in childhood III. A longitudinal study of comorbidity with and risk for conduct disorder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15, 205-217.
- Lindahl, K. M. (1998). Family process variables and children's disruptive behavior problem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2, 420-436.
- Loeber, R., & Stouthamer-Loeber, M. (1998). Development of juvenile aggression and violence. Some common misconceptions and

- controversies. *American Psychologist*, 53(2), 242-259.
- Loveland, J. M., Lounsbury, J. W., Welsh, D., & Buboltz, W. C. (2007). The validity of physical aggression in predicting adolescent academic performance.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7, 167-176.
- Mathieson, L. C., & Crick, N. R. (2010). Reactive and proactive subtypes of relational and physical aggression in middle childhood: Links to concurrent and longitudinal adjustment. *School Psychology Review*, 39, 601-611.
- McLeod, B. D., Weisz, J. R., & Wood, J. J. (2007). Examining the association between parenting and childhood depression: A meta-analysis. *Clinical Psychology Review*, 27, 986-1003.
- Olweus, D. (1980). Familial and temperamental determinants of aggressive behavior in adolescent boys: A causal analysis. *Developmental Psychology*, 16, 644-660.
- Ostrov, J. M., & Godleski, S. A. (2009). Impulsivity-hyperactivity and subtypes of aggression in early childhood: An observational and short-term longitudinal study. *European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18, 477-483.
- Palladino, P., Poli, P., Masi, G., & Marchesi, M. (1997). Impulsive-reflective cognitive style, metacognition, and emotion in adolescence. *Perceptual Motor Skills*, 84, 47-57.
- Patterson, G. R. (1986). Performance models for aggressive boys. *American Psychologist*, 41, 432-444.
- Patterson, G. R. (2002). The early development of coercive family process. In J. B. Reid, G. R. Patterson, & J. J. Snyder (Eds.), *Antisocial behavior in children and adolescents: A developmental analysis and the Oregon model for intervention* (pp.25-44).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 385-401.
- Raine, A., Dodge, K., Loeber, R., Gatzke-Kopp, L., Lynam, D., Reynolds, C., Stouthamer-Loeber, M., & Liu, J. (2006). The reactive-proactive aggression questionnaire: Differential correlates of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in adolescent boys. *Aggressive Behavior*, 32, 159-171.
- Ramirez, J. M., & Andreu, J. M. (2006). Aggression, and some related psychological constructs (anger, hostility, and impulsivity): Some comments from a research project. *Neuroscience and Biobehavioral Reviews*, 30, 276-291.
- Rappaport, N., & Thomas, C. (2004). Recent research findings on aggressive and violent behavior in youth: Implications for clinical assessment and intervention.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35, 260-277.
- Rey, J. M., & Plapp, J. M. (1990). Quality of perceived parenting in oppositional and conduct disordered adolescent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29, 382-385.
- Rindskopf, D. (1984). Structural equation models.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13, 109-119.
- Roberts, R. E., Andrews, J. A., Lewinsohn, P. M.,

- & Hops, H. (1990). Assessment of depression in adolescents using 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Psychological Assessment*, 2, 122-128.
- Sameroff, A. J. (1995). General systems theories and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In D. Cicchetti & D. J. Cohen (Eds.),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Vol.1. Theory and methods* (pp. 659-695). New York: Wiley.
- Sheeber, L., Allen, N. B., Leve, C., Davis, B., Shortt, J. W., & Katz, L. F. (2009). Dynamics of affective experience and behavior in depressed adolescent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50, 1419-1427.
- Sheeber, L., Hops, H., Alpert, A., Davis, B., & Andrew, J. (1997). Family support and conflict: Prospective relations to adolescent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5, 333-344.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 422-445.
- Valadez, J. J., & Ferguson, C. J. (2012). Just a game after all: Violent video game exposure and time spent playing effects on hostile feelings, depression, and visuospatial cognition.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8, 608-616.
- Vigil-Colet, A., & Codorniu-Raga, M. J. (2004). Aggression and inhibition deficits, the role of functional and dysfunctional impulsivit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7, 1431-1440.
- Wilson, S. J., Lipsey, M. W., & Derzon, J. H. (2003). The effects of school-based intervention programs on aggressive behavior: A meta-analysi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1, 136-149.
- You, J., & Leung, F. (2012). The role of depressive symptoms, family invalidation and behavioral impulsivity in the occurrence and repetition of non-suicidal self-injury in Chinese adolescents: A 2-year follow-up study. *Journal of Adolescence*, 35, 389-395.

원 고 접 수 일 : 2012. 06. 05.

수정원고접수일 : 2012. 08. 06.

최종게재결정일 : 2012. 08. 10.

Multiple Mediated Effects of Depression and Dysfunctional Impulsivity in the Relation Between Perceived Parental Control and Adolescent Aggression

Hyeonsook Shin Yumi Kwak Sunmi Kim

Chonnam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Education

This study was conducted to test multiple mediated effects of adolescents' depression and dysfunctional impulsivity in the relation between perceived parental control and adolescent aggression. Nine-hundred fifty-seven high school students in Grade 10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perceived parenting behavior scale, the K-CES-D scale, the impulsivity scale, and the reactive proactive aggression questionnaire were administered to students in their classrooms.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was employed to test the goodness of fit of the mediation models in which the relation between parental control and adolescents' aggression is mediated by their depression and dysfunctional impulsivity. Bootstrapping procedure was applied to test the multiple mediated effects of depression and dysfunctional impulsivity. The results showed that parental control affects adolescents' aggression through either the mediation of depression or that of dysfunctional impulsivity. More importantly, parental control affected adolescents' depression, which in turn influenced dysfunctional impulsivity, which eventually affected aggression. Furthermore, even when depression and dysfunctional impulsivity were taken into account as mediators, the direct effect of parental control on adolescents' aggression was significant. These results support an integrative framework delineating the role of depression and dysfunctional impulsivity as multiple mediators in the process through which parental control affects adolescents' aggression. The results also imply the necessity of implementing both direct and indirect services in school psychological intervention and prevention for aggressive adolescents. Finally,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Key words : parental control, depression, dysfunctional impulsivity, aggression, multiple mediated effect